

『漢陽』 所載 在日韓人文學의 연구 방향과 과제

이 헌 홍*

<차 례>

1. 글머리
 2. 『한양』의 창간 목표와 주요 내용
 3. 『한양』 소개 재일한인문학의 현황과 연구 방향
 - 1) 소설
 - 2) 수필
 - 3) 비평과 시
 4. 마무리
-

1. 글머리

『漢陽』은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東京에서 간행한 월간 교양 잡지이다. 1975년에 창간된 『三千里』가 재일 동포 사회의 일본어 계간 잡지임에 반해 『한양』은 1962년에 한글로 간행된 우리말 잡지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의 대상이 된다.¹⁾ 在日韓人 사회에서 간행된 우리말 잡지를 주목하는 까닭은 이를 중심으로 현지의 필자와 독자는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leehh@pusan.ac.kr).

1) 두 잡지의 수명을 보면, 『한양』이 1962년 3월부터 20년 남짓을 헤아리도록 존속했음에 비해 『삼천리』는 1975년 1월부터 10년 남짓만에 종간을 보게 된다.

물론, 한민족 일반의 의식세계와 지향가치가 상호 소통 공유하는 마당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이다. 『한양』에 수록된 재일 한인의 삶과 문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및 삶의 현실에 관련된 글들이 그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작품 및 관련 담론의 이러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값하듯 『한양』에는 재일 한인의 삶, 당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논평과 해설, 한국의 지리 역사와 전설 등에 관한 문화일반론적 성격의 글들은 물론이고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의 많은 문학작품들이 실려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양』은 그 서지적 전모는 물론이고 잡지의 전반적 발행 상황과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때문에 그 동안 국내 연구자들도 이 잡지를 별로 주목하지 못했고, 그 문학적 의미를 전반적으로 탐구한 연구 성과 또한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한양』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가 散見되기는 하지만 잡지의 종합적 성격이나 작품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갈래 중심으로의 부분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²⁾

특히, 『한양』은 1974년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되면서³⁾ 불온서적으로 낙인찍혀 국내에는 일부만 소장되어 있다.⁴⁾ 이에 더하여

2) 『한양』에 수록된 비평 관련 담론의 일부나 필화 사건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비평작업』, 『청맥』, 『한양』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편,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깊은샘, 2002, 99~122쪽; 박수연, 「1960년대의 시적 리얼리티 논의 —장일우의 『한양』지 시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217~238쪽;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제50호, 민족어문학회, 2004. 10, 287~325쪽 등을 참조.

3) 임헌영, 「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990년 겨울, 283~301쪽; 한승헌, 「『한양』지 사건의 수난」, 『장백일교수 교회기념문집』, 대한, 2001, 181~184쪽; 장백일, 「세칭 문인간첩단 사건」, 한국문인협회 편, 『문단유사』, 월간문학출판부, 2002, 57~61쪽.

4) 국내의 공공 도서관에 소장된 『한양』은 모두 합쳐(복본을 제외함) 80권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한양』은 모두 180여권 간행된 듯한데, 필자는 일본 등지에 소

『한양』은 1970년대 이후 월간에서 격월간으로 합본 출간되기도 하는 등 발행이 불규칙해지고 그 분량 또한 왜소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보전대, 『한양』의 수명은 비록 22년을 헤아리고 있지만 그 왕성한 활동과 그로 인한 영향력은 아무래도 창간호로부터 10년 남짓 동안이 그 절정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1962년 3월 창간호에서부터 1972년 12월호까지 『한양』에 수록된 재일한인문학⁵⁾ 작품의 현황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2. 『한양』의 창간 목표와 주요 내용

1962년 3월에 창간호를 낸 『한양』의 편집 겸 발행인은 東京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김인재이고, 집필진 또한 대부분이 재일한인들이다. 창간호의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 쟁점, 우리의 자연환경 유산, 전통문화에 관한 학술적 논문과 時論, 그리고 시·소설·수필·평론 등의 문학작품과 관련 담론 등이 수록된 종합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된 것을 포함 총 170여권을 열람할 수 있었다.

- 5) ‘재일한인문학’은 창작의 주체를 기준으로 설정한 문학의 귀속적 갈래 명칭이다. 이에는 일본어로 표현된 문학과 한국어문학이 있다. 이 중에서 일본어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키는 데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문학 예술의 국경을 문제 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소위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의 삶과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문학이면 어느 것이나 그 표기문자에 상관없이 광의의 한국문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는 온전한 의미의 한국문학은 아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우리 문학의 본질 내지는 정체성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자료로서의 독자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을 한국문학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태도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재일한인의 한글문학(한국어문학)이 한국문학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한양』의 이와 같은 종합지적 성격은 해를 거듭하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양』은 재일한인에 의해 간행된 잡지인 만큼 고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함께 자기 정체성 모색에 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특수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게다가 『한양』은 격변기의 60년대 한국 현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당시 우리 민족의 통일 운동 및 진보적 문화운동에도 그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우선, 잡지의 전반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간호인 1962년 3월호 목차의 중요한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안은 수록 페이지를 나타낸다.

創刊辭-(8~9)

軍政 民政-姜泰旭(10~15)

革命政府의 第二年-金景鎮(16~20)

韓國의 經濟展望-李泰聿(21~23)

自立經濟施策에의 待望-朴泳喆(24~26)

韓日會談의 이모저모(27~33)

後進國家에 있어서의 外資導入問題-金基深(38~46)

美國의 極東政策-申潤哲(47~51)

「理性에 對한 呼訴文」에 對答하여-康英俊(34~37)

家族計劃과 韓國의 倫理-朴元錫(77~79)

社會惡과 罪意識-金仁在(84~88)

學生과 職業-文哲浩(80~83)

버림받은 地帶 「私娼窟」-全世民(89~92)

<평론>

作家의 眼目:「睡蓮」과 「束草行」에 對하여-柳影默(112~115)

그 作品과 나-張一字(94~105)

新世代에 對한 再論-金純南(63~69)

高麗歌謠 小考-崔容鎮(106~111)

<수필>

겨울의 옛 城趾-李俊錫(116~117)

火爐 이야기-辛相仁(118~119)

고려청자-한병식(120~127)

이사와 문패-김철수(128~129)

<시>

憧憬, 다리, 달빛-庚連(134~136)

<소설>

어느 하루-丁徹(137~142)

봄비-朴暎一(143~155)

이 외에도 한국의 문화나 명산품을 소개하는 글이 마련되어 있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한양』에는 시사적인 내용의 논설류와 함께, 시·소설·수필·평론 등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수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

창간호의 이러한 내용과 함께 창간사를 통해 우리는 『한양』이 추구했던 목표와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창간사」는 모두 2쪽의 분량인데, 당시의 종이 사정을 보여주듯 오늘날 학술논문집의 각주보다 더 작은 활자로 깨알처럼 뽁뽁이 인쇄된 것이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이국 만리 낯선 땅을 방황해 본 사람이 아니면 조국의 연
연한 정을 다는 알 수 없다. 하물며 조국을 잃고 호구의 길을
찾아 이국땅을 헤매는 사람들의 가슴에 서리는 한없는 심정
이라! 하늘을 우리러 호소할 곳 없고 땅을 굽어보아 몸돌 곳
없으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암운이 뒤덮고 있던 기나긴
세월 우리 한민족이 겪은 고초는 실로 헤아릴 수 없다.

바로 그 쓰라린 고통의 연륜과 더불어 우리 재일교포들의

6) 창간호에는 문학 작품 및 관련 담론이 총 지면의 43%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줄
잡아 보더라도 이 비율은 평균 3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운명이 시작되었고 허다한 비분의 역사를 안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조국 없는 설움보다 더 큰 설움을 알지 못하고 만 가지 불행의 근원이 이에 있음을 체험한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안타까이 조국을 불러 몸부림치는 그 뜨거운 일편단심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것인가!(중략)

바로 이러한 뜻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 뜻있는 교포 인사들과 힘을 모아 잡지 『한양』을 창간한다. 제하여 『한양』이라 함은 그 이름이 곧 조국을 상징하는 정다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국의 오늘이 있고 거기에 한국의 내일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의 과거도 또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중략)

잡지 『한양』은 이에 무심할 수 없는 우리 겨레의 양식이 될 것이며, 고동치는 조국의 넋을 담은 국민들의 공기(公器)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고담준론(高談峻論)을 즐겨하지 않으며 허장성세에 이끌리지 않고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과임들로 자기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정원에 한 그루 과실나무를 심는 말없는 원예사를 본받을 것이다. 한국사람의 고유한 문화, 한국사람의 고유한 기질, 한국사람의 고유한 윤리, 여기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고 깨끗한 심령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다듬고 가꾸는 원예사의 심경을 우리는 지닐 것이다.」

「창간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양』 창간의 목표와 그 활동 양상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조국을 떠나 재일한인으로 살고 있는 동포들의 애환과 한없는 나라사랑의 절규, 둘째,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의 체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다짐, 셋째,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의 제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소설·수필 등의 문학작품, 재일한인으로서의 현실적 조건과 삶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 등에 관한 글들이 대체로 첫째의 경우를 다룬 것이라면, 당대의 정치

7) 「창간사」, 『한양』 창간호, 1962, 3.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평과 문예비평 등에 관한 글들은 셋째의 경우에 바탕을 둔 비판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한국학 관련 논문이나 한국의 윤리사상에 대한 고찰은 둘째의 목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양』 소재 재일한인문학의 현황과 연구 방향

1) 소설

창간 이후 초창기 10년 동안의 『한양』에 수록된 소설 작품은 단편 174 편, 2~3회 분재된 중편이 5편, 4회 이상 연재된 장편이 2편으로 모두 181편이다. 이 작품들은 물론 국내작가의 작품과 재일한인의 작품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내작가의 작품은 단편 83편, 중편 4편으로 모두 87편이다. 그리고 재일한인 작가의 작품은 단편 91편 장편 2편으로 모두 93편이다.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국내작가와 재일한인 작가의 작품 수가 거의 비슷하게 발표된 듯하다. 이를 작가 및 갈래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이 시기 『한양』에 소설작품을 발표한 재일한인 작가는 모두 22명이고, 국내작가는 32명이다. 재일한인 작가의 수가 적음에도 발표된 작품의 숫자가 오히려 다수인 것은 몇몇 작가가 여러 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는 장편 1편을 포함하여 단편 15편 등 모두 16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박영일은 24편의 단편을, 정철은 22편의 단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작가는 김송이 중편 1편과 단편 14편, 강금종이 단편 9편으

8) 이 구분은 권영민 편,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한국현대문인대사전(상·하)』, 아세아문화사, 1991을 기준으로 했다. 이 문헌에 작가로 등재되어 있는 문인들은 국내작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작가들은 재일한인 작가로 판단하였다.

로 비교적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을 뿐 여타 작가들의 대부분은 1~4편 정도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는 『한양』에 수록된 소설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한양』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재일한인 소설 작가들에 대한 역사 전기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단에 잘 알려져 있는 재일한인 작가들로 우리는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등의 1, 2세대 유명 작가와, 이양지, 유미리, 현월, 원수일 등 최근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양』에 소설을 발표한 재일한인 작가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 작가는 없다. 따라서 이들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발굴 조사함으로써 작가론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재일한인문학 작가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한국문학사 서술에서도 그에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 『한양』 소재 소설 목록

	재일한인 작가 작품	국내작가 작품
장 편	김준용-<그늘진 大地>(9회 연재) 김철수-<閻王 진노하다>(8회 연재)	
중 편		김송-<兩班傳>(상)(하) 박용숙-<簡易史>(상)(중)(하) 송지행-<손 진노하다>(상)(하) 하근찬-<기울어지는 강>(상)(하)
단 편	김경식-<낙일> 외 2편 김철수-<건널목> 외 15편 김태원-<序景> 외 1편	강금중-<그 여자의 경우> 외 8편 김광식-<길 건너 국화> 김송-<古物人間의 意味> 외 14편

단 편	김학영-〈과거〉 외 3편 박영일(朴暎一)-〈봄비〉 외 23편 박일동-〈악몽〉(상)-미완 박일송-〈느티나무 전설〉 외 1편 유승휴(柳承時)-〈열연은 계속되고〉 윤동호-〈우정〉 이경희-〈닭〉 외 1편 이상기-〈두 친구〉 이상직-〈장마철〉 이숙혜-〈訣別〉 이순학-〈哭〉 외 4편 이재환-〈산울림〉 외 1편 이택-〈소〉 외 1편 전순란-〈골목〉 정철(丁徹)-〈어느 하루〉 외 21편 최용규-〈悔心〉 표문태-〈金守凡 小傳〉 홍명희-〈고무신〉	김수남-〈일인칭의 계절〉 김영희(金寧姬)-〈向鹿苑〉 김이연-〈가호적〉 외 1편 남정현-〈脫衣記〉 외 2편 문신수-〈고향땅〉 외 1편 민기-〈3病監沒落〉 외 3편 박영준-〈치사한 인생〉 박용숙-〈신형 아파트〉 외 3편 선우 휘-〈값을 수 없는 빛〉 손소희-〈저축되는 행복〉 송상옥-〈너는 무엇을〉 송지행(昇志行)-〈세코날〉 외 3편 신상웅-〈바다와 거룬 사나이〉 외 1편 신석상-〈城〉 외 2편 심재언-〈겨울〉 외 1편 오유권-〈騷亂〉 오찬식-〈追懷〉 외 2편 유금호-〈소설가 Y씨와 쥐고기〉 유현종-〈牧民心書抄〉 윤형묵(尹珩默)-〈외로운 더욱 외로운〉 이동희-〈空轉〉 외 5편 이범선-〈황혼의 기도〉 이석봉-〈하찮은 득실〉 임수일-〈백의의 수기〉 외 1편 정을병-〈남해, 그 모랫섬 전설〉 조정래-〈點의 回線〉 천승세-〈麥嶺〉 외 1편 하근찬-〈섬 엘레지〉 외 2편 한말숙-〈출발의 주변〉
--------	---	--

둘째,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재일한인 소설 작가들은 거의 일본어로 창작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한양』을 무대로 창작 활동을 한 소설 작가의 작품을 이들의 작품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재일한인 소설가 중에서 한국어로 창작이 가능했던 작가는 김석범, 김학영 등 해방 후 제1세대의 몇몇 작가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들 역시 한국어 창작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음에서인지 한국어로의 창작을 지속하지 못했던 듯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양』에 발표된 재일한인 작가의 한국어 작품은 그 문학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생활과 의식 내지는 창작활동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일’이라는 실존적 조건이 어떻게 작품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한양』에 발표된 재일한인의 작품 경향을 우리는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①재일한인으로서 조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 상황이나 주요 관심사를 작품화한 것, ②일본 내에서 소수민족 집단으로서의 삶을 형상화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작품 경향은 이미 알려져 있는 재일한인 작가들의 작품 경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 대한 연구는 위의 두 가지 경향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①의 경향을 지닌 작품의 경우, ‘재일’이라는 실존적 조건이 국내작가의 작품경향과 어떻게 변별되는 특성을 보이는가를 짚어내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 된다. ②의 작품 경향은 재일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작품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 일본 내에서 차별 받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저항의식 등이 작품의 주요 테마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에서 민족주의 또는 민족문학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바라보거나 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편견을 경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작품의 성격을 민족문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집착하거나, 민족적 정체성이나 세대갈등 등의 고정된 주제에만 매달리는 등의 소모적인 태도는 유보되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정작 그들의 문학이 지닌 고유의 특징이나 현실적 삶의 주요 관심사를 놓쳐버릴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양』은 국내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기에 수록된 소설과 국내문단 소설과의 연관관계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

송, 강금종, 조정래, 김이연, 유현종, 정을병, 남정현, 박영준, 하근찬 등의 많은 국내 작가가 『한양』에 작품을 투고하고 있다. 이는 『한양』이 국내 문단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수필

창간호부터 1972년까지의 『한양』에 수록된 수필은 모두 572편이다. 권당 평균 5편 가까운 수필이 실린 셈이다. 이들 작품의 작가 수는 모두 242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일한인 작가는 80여명⁹⁾에 지나지 않으니 그 작가적 비중은 낮은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발표한 작품은 310여 편으로서 전체 작품의 절반을 상회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잡지의 수필 지면을 주도한 필진은 아무래도 재일한인 작가라 하겠다. 이 기간 동안에 발표된 수필 작품의 총수를 필자 수로 나누어보니 1인당 평균 작품 수는 2.3편이다. 그런데 재일한인 작가는 1인당 평균 3.9편의 수필을 발표하였으니 이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편 이상의 수필을 발표한 작가는 34명이고 이들의 작품 수는 모두 290편이다. 이 중에서 26명이 재일한인 작가이고 이들의 작품 수는 239편이다. 이에 비해 국내작가는 8명에 51편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정도이다.¹⁰⁾

『한양』에 수록된 수필의 주요 필자와 대표적인 작품명 그리고 작품 수를 들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9) 재일한인 작가의 작품인지 국내 작가의 투고 작품인지를 엄밀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의 정확한 구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심도 있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0) 여기서 재일 작가, 국내 작가의 구분은 각주 8)의 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수필의 필자는 등단이나 문인협회 회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본문의 대세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표 2> 『한양』 소재 수필 목록

재일한인 작가 작품	국내작가 작품
경련(庚連)-<진달래와 개나리> 외 3편	김도희-<광복일을 기하여> 외 8편
김동하 -<打令 斷想> 외 3편	김송-<통한의 20여년> 외 6편
김동훈-<歸化 斷想> 외 3편	문선규-<到日小錄> 외 7편
김명진-<모국어를 두고> 외 9편	문여송-<일본 콤플렉스> 외 3편
김을한-<서울에 와서> 외 25편	양주동-<日東留學의 회억> 외 6편
김인재-<보릿고개> 외 3편	이해두-<고향의 신화> 외 6편
김형렬-<差別 斷想> 외 9편	정중-<한라산 등반> 외 4편
문철호-<절레꽃 필 무렵> 외 4편	추은희-<滯日 有感> 외 3편
박영일-<故郷> 외 4편	
박원석-<고향에 부치노라> 외 3편	
박일송-<풍토기> 외 8편	
박정자-<자녀 교육의 고충> 외 4편	
박화자-<모국어> 외 5편	
배동호-<교포와 일본 이름> 외 3편	
송면-<저도 엽전입니다> 외 10편	
신상인-<향수의 날개> 외 27편	
이덕성-<모국어> 외 13편	
이준석-<가혼> 외 7편	
이택-<민요에 부쳐두는 말> 외 5편	
장재성-<내 고향의 봄> 외 3편	
장효-<미완성의 八--五> 외 3편	
전세민-<동경의 개장국> 외 18편	
하상두-<탈춤놀이> 외 3편	
한기수-<고향 사람들> 외 25편	
함원태-<어머니의 얼굴> 외 4편	
홍명희-<김치 党> 외 8편	

재일한인 작가들의 수필에 나타나는 주요 제재 및 주제를 살펴보면, 수탈과 가난의 조국 현실, 무작정 도일과 유랑, 강제 노역, 피폭 체험, 차별, 굶주림, 셋방살이, 본명 사용, 모국어, 자녀 교육, 혼인, 조국애, 토속 음식, 향수, 동향 모임, 광복의 감회, 생활고, 귀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수필에서 우리는 재일한인의 일상과 의식 세계를

지배해온 주요 관심사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바로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직결된다. 조국에서 쫓겨나기까지의 험벗고 굶주린 삶, 징용이나 징병으로 강제 동원된 경우 등이 바로 쫓겨나고 끌려간 사연들이다. 미지와 공포의 낯선 땅에 이르는 과정,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일상, 구박과 천대, 전장의 노역이나 총알받이 신세, 죽음을 무릅쓴 탈출 시도, 악형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가 하면, 광복 후에는 또다시 각종의 동화정책에 의한 차별과 설움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며, 조국을 향한 향수에 젖어드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재일한인 생활사이야기의 대체적인 공약수들이다. 이처럼 조국을 떠나 타향에서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의 삶의 궤적을 우리는 『한양』에 수록된 재일한인의 수필을 통해 재구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와 함께, 이들 수필에서 찾을 수 있는 생활사의 편린들이 소설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는가를 살피는 작업 또한 앞으로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사정을 수필이라는 장르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과 관련지어 보면 그들의 삶이나 의식이 진솔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의 주요 내용들은 소설에서 다루는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수필과 소설의 상관성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62년 11월호에 발표된 박원석의 「고향에 부치노라」, 1963년 1월호에 실린 전세민의 「동경의 개장국」 등을 재일한인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삼아 소설작품의 분석에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63년 3월호의 「모국어」(이덕성), 1966년 1월호

11) 필자는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그 서사문학적 형상화의 일단을 살핀 바 있다(이헌홍,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 89~142쪽). 그런데, 당시에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일본어로 발표된 작품과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살핀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한양』에 수록된 우리말 수필과 소설을 자료로 활용하여 수행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 「교포와 우리말」(황명동) 등의 수필을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의 언어의식을 추론하는 실마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재일한인 소설가의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식과 재일한인의 삶의 상관성 문제를 우리는 수필의 분석을 통해 보다 실증적이고 설득력 있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설과 수필의 상호텍스트적 연구는 재일한인 소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유용한 한 방법적 지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3) 비평과 시

『한양』의 비평은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4월 혁명 이후 문학의 현실주의적 성격이 강화된 한국문단의 지형에서 『한양』은 문학과 사회의 상동성 이론에 입각하여 참여문학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한국문학사는 순수와 참여의 대결구도를 바탕으로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쪽과, 문학과 현실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두드러지게 양분되었다. 이러한 문단의 대립적 지형에서 군사혁명정부 당국의 검열과 통제 때문에 정론을 펼치기 어려웠던 국내 비평가들에게 『한양』의 창간은 중요한 발표 매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던 듯하다.

당시 김우중, 임헌영, 임중빈, 정태용, 장백일, 김병걸, 구중서, 홍사중 등 소위 참여문학 진영의 비평가들 대부분이 『한양』의 주요 필자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962년의 창간호부터 1972년 말까지의 10년 동안에 『한양』에는 약 200여 편의 평론이 발표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 비평가는 대략 18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서 장백일이 10편의 평론으로 가장 많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으로 김우중이 8편, 홍사중과 정태용이 5편, 구중서, 임중빈, 임헌영 등이 각각 2편씩의 비평을 발표했다.

재일한인 비평가로서 『한양』을 주요 무대로 활동한 대표적인 비평

가는 장일우, 김순남이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조차도 이들의 주요 활동과 이력은 밝혀지지 못하고 다만, 국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양』의 일부 평론만을 대상으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¹²⁾ 두 평론가의 활약상을 보면, 장일우는 1962년 창간 이후 1965년까지 시문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18편의 평론을 발표했고, 김순남은 1962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소설 분야를 중심으로 60편의 평론을 발표했다. 그 편수를 놓고 볼 때도 이 두 평론가의 활약은 『한양』의 문학담론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두드러진다.

또한 이들은 『현대문학』, 『자유문학』 등 국내 문예지에도 비평을 발표함으로써 당시의 한국문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두 평론가에 대한 연구가 보다 구체화된다면 『한양』의 전모는 물론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을 연구하는 데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외에도 제일 한인으로 추정되는 비평가들이 16명 정도 더 보이는데, 그 편수는 대부분 1~2편에 그치고 있다.

『한양』의 비평은 대부분 순수문학의 허위성과 모더니즘문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서정주, 김동리, 이어령 등 당시 한국문단의 대표적 문인들에 대한 직접적 비판에 초점을 두었던 듯하다. 이를 통해 『한양』은 당시 한국문학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한국문학논쟁에서 참여문학진영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前史로서의 역할도 상당 정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66년의 『창작과 비평』 창간 이전부터 『한양』의 비평은 현대시의 난해성과 기교주의를 비판하고 생활 현실을 강조하는 리얼리즘을 논리화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현실주의를 체계화하는 비평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¹³⁾

이러한 비평적 실천은 장일우, 김순남과 같은 제일비평가들에 의해

12) 이에 대해서는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2005. 2, 26~58쪽 참조.

1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상일, 위의 논문을 참고할 것.

더욱 신랄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여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그들의 위치가 더욱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비평 활동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 비평가에 대한 전기적 자료 조사는 물론 이들이 발표한 비평의 전모를 총체적 유기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창간호부터 1972년까지 『한양』에 발표된 시는 대략 10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시인의 수만 하더라도 170여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국내 시인이 120여 명, 재일 시인이 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⁴⁾ 국내 시인의 경우 1960년대 한국 시문학의 중심에 있었던 상당수의 시인들이 『한양』에 시를 발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박두진 22편, 박봉우 16편, 신석정 25편, 이설주 13편, 김소영 15편, 김용호 21편, 이태극 14편, 최승범 17편 등을 비롯하여 서정주, 유치환, 신동엽, 신동문, 구상, 고은, 김규동, 김남조, 김지향, 박성룡, 조태일, 신동집 등이 약간의 시를 발표했다. 시의 제재나 주제를 대략 살펴보면 그동안 『한양』의 성격이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것처럼 평가된 것과는 달리 소위 순수시에서부터 참여시에 이르는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두루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일 시인의 경우는 경련 64편, 김성호 19편, 김윤 48편, 박일동 41편, 윤동호 30편, 정영훈 63편 등 한 시인의 작품이 시집 한 권 분량에 이를 만큼 이들은 『한양』의 시문학적 위상에 상당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인이 남긴 작품의 분석을 통한 가치 평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의 삶과 의식 세계를 더듬을 수 있는 전기적 자료의 조사와 발굴 또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양』에 수록된 재일한인의 문학비평과 시

14) 『한양』의 소설, 수필, 그리고 비평의 지면을 주도한 작가의 주류는 재일한인들이다. 이와는 달리 『한양』의 시단에는 국내 작가의 활약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현상은 소설과 수필 등에 비해 재일한인 신분의 시인이 부족했던 현실에서 기인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는 몇몇 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다양성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양』의 시와 비평은 소설이나 수필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작가의 작품을 폭넓게 수록함으로써 인적 교류와 함께 발표 지면의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양』과 1960년대 한국문학과와의 관련양상에 대한 논의도 더욱 심층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 분야에서는 국내 작가의 투고 작품이 재일 한인들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사실에서 미루어보더라도 『한양』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문학사의 외연을 넓게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4. 마무리

이 글의 목적은 일본 東京에서 간행된 바 있는 『한양』이라는 우리 말 잡지에 수록된 문학작품 및 관련 담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양』의 창간으로부터 10년 동안에 발표된 문학작품과 관련 담론의 목록을 작성하고¹⁵⁾ 그 대체적 윤곽의 분석을 통해 이 분야 연구의 의의와 방향을 성글게나마 제시한 셈이다. 본론의 핵심적인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한양』의 문학작품과 관련 담론을 주도한 필진은 아무래도 재일한인 작가들인 듯하다. 지금까지 재일한인문학에 대한 연구는 김석범, 이회성, 이양지, 김달수 등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작가와

15) 필자가 작성한 목록은 A4 용지로 시가 19쪽, 소설이 6쪽, 비평이 4쪽, 수필이 15쪽에 이를 정도로 매우 방대한 분량이다. 이는 다른 기회를 빌어 발표할 예정이다.

그들의 일본어 작품¹⁶⁾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한양』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즉, 이 자료의 검토 결과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문학의 두 범주를 일본어문학과 한국어문학으로 보다 온전히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⁸⁾

둘째, 『한양』에 수록된 문학작품 및 관련 담론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문학의 실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은 물론, 한국문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성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양』의 초창기 10년 동안에 만도 한국문학사에 전혀 생소한 인물인 김철수, 정철, 박영일 등의 소설가가 각각 15편 이상의 작품을 『한양』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경련(庚連), 정영훈이라는 시인이 60여 편, 김윤이 40여 편의 시를, 그리

-
- 16) 엄밀히 말해 이들은 한국문학의 본령이 아니다. 물론, 광의의 한국문학에 이들을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한양』에 재일한인들이 한국어로 무수히 많은 작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어로 된 작품들만을 마치 재일한인문학의 본령인 듯한 것으로 삼고, 이들을 중심으로 재일한인문학을 다루어 온 그 동안의 연구 경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일한인 일본어문학 작품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양자 모두 재일한인문학으로서 제 나름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본령인가의 문제는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한다.
- 17) 이러한 편향성의 원인을 재일한인 작가에 의해 발표된 한국어문학 작품의 자료적 한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70년대까지는 『한양』과 같은 잡지를 중심으로 축적된 재일 한국어문학의 성과가 없지 않을 진데, 이들의 실상과 가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한양』이외에 문예동을 중심으로 한 조총련 소속 우리 동포의 한국어문학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또한 요망된다. 문예동 계열의 작품에 대한 관심은, 심원섭 「재일 동포의 문학예술의 현황과 창작 방향」, 『세계속의 한국문학』, 새미, 2002, 484~505쪽;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 나타난 자기 정체성의 재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31집, 2002, 279~308쪽에 의해 일부 부분 시도된 바 있다.
- 18) 재일한인문학의 명칭과 개념, 범주 등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윤송아, 「재일 조선인문학 개관」,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10, 169~17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다.

고 비평가 김순남이 60편, 장일우가 18편의 평론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의 소개만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이다.

셋째, 『한양』에 발표된 국내 작가의 작품 중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자료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의 경우, 많은 작품들이 그들의 창작집이나 전집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작품을 찬찬히 검토 발굴한다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전반기 사이의 우리 문학사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넷째, 재일한인 작가들이 우리말로 창작하고 비평 연구한 한국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문학사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자료인 『한양』의 문학작품 및 관련 담론의 서지적 전모를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한양』, 재일한인문학, 재일한인 한국어문학, 재일한인 일본어문학.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한양』(1962년 3월~1972년 12월).

2. 논문 및 단행본

권영민,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_____, 『한국현대문인대사전(상·하)』, 아세아문화사, 1991.

김종희 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167~326쪽.

박수연, 「1960년대 시적 리얼리티 논의 —장일우의 『한양』지 시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217~325쪽.

심원섭, 「재일 동포의 문학예술의 현황과 창작 방향」, 『세계 속의 한국 문학』, 새미, 2002, 484~505쪽.

_____,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 나타난 자기 정체성의 제 양상」, 『한국 문학논총』 제31집, 2002, 279~308쪽.

유숙자, 『재일 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이재봉, 「재일한인문학의 존재방식」, 『한국문학논총』 제32집, 한국문학회, 2002. 12, 361~394쪽.

이헌홍,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 8, 89~142쪽.

임현영, 「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990년 겨울, 283~301쪽.

장백일, 「세칭 문인간첩단 사건」, 『문단유사』, 월간문학출판부, 2002, 57~61쪽.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제50호, 민족어문학회, 2004. 10, 287~325쪽.

한승헌, 「『한양』지 사건의 수난」, 『장백일교수 고회기념문집』, 대한, 2001, 181~184쪽.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비평작업』, 『청맥』, 『한양』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편,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깊은샘, 2002, 99~122쪽.

Abstract

Direction and Task of Study on Ethnic Japanese-Koreans' Literature in *Hanyang*

Lee, Heon-H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necessity of a study on the literary works and related discourses in *Hanyang*, the Korean magazine that was ever published in Tokyo, Japan. This article will be concluded by summarizing the critical discussion and mentioning the task of study in the future.

Firstly, it seems that it was, after all, ethnic Japanese-Korean writers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literary works and related discourses in *Hanyang*. The study on ethnic Japanese-Koreans' literature so far is limited to comparatively well-known writers such as Kim Seok Beom, Lee Hee Seong, Lee Yang Ji, Kim Dal Soo, etc., and their Japanese works. Reviewing *Hanyang* would make it possible for us to sub-categorize the ethnic Japanese-Koreans' literature into Japanese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Secondly, the analysis and study of the literary works and related discourses in this magazine would enable us to widen and deepen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to come closer to ethnic Japanese-Koreans' literature. This argument might be found convincing, considering that during the initial 10 years of *Hanyang*, Kim Cheol Soo, Jeong Cheol, Park Young

Il, Gyung Ryun, Jeong Young Hoon, Kim Yoon, Park Il Dong, Kim Soon Nam, Jang Il Dong, etc., writers or critics quite unknown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published the works ranging from 15 to 60.

Thirdly, It is also important to unearth the works not known to the academic world yet among those ever published in *Hanyang*. For the writers who used to produce works in Korea, many of their works are thought to be known through the works or the complete works. However, it is also assumed that there are many works which are not known yet for various reasons.

Lastly, *Hanyang* has been neglect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even though it is the Korean literature magazine in which ethnic Japanese-Korean writers published literary works and gave a literary criticism in Korean language. Now it is time to investigate into the bibliographical reality of its literary works and related discourses so that it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a subject to be followed.

Key words : *Hanyang*, ethnic Japanese-Koreans' literature, ethnic Japanese-Koreans' Korean literature, ethnic Japanese-Koreans' Japanese literature.

논문투고일 : 3월 15일
심사완료일 : 4월 9일
게재결정일 : 4월 18일